



중동 전쟁 여파로 연료·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향후 3개월 내 자바 전역 제조업계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5일 전했다.

MONTHLY **KOFA**

코파의

칭찬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41**
2026/06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aeto@gmail.com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국세청, 체납 세금 49조 루피아 대대적 추적... “한인기업도 납세 준수해야”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 시스템이 ARMS, ABS 등의 첨단 기술로 고도화



▲국세청, 세금 체납 공장 압류 Penyalan pabrik penunggak pajak (Foto: istimewa)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이 법적 확정 판결(inkrah)을 받은 고액 체납자 200명을 대상으로 49조 루피아(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 징수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인기업들의 철저

한 납세 규정 준수도 요구되고 있다. 8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 보도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현재 200명의 우선 관리 대상 납세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체납액 추적을 진행 중이다.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은 “이번 징수를 위해 다수

의 법 집행 기관과 합동 활동을 벌이는 ‘다각적 접근 방식(multidoor approach)’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징수 개시 당시 이들 200명의 총 체납액은 약 60조 루피아에 달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이 지난해 말까지 약 11조 4,800억 루피아를 환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현재 남은 추적 대상 체납액은 약 49조 루피아로 집계됐다. 조세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올해 8가지 주요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조세 범죄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증거(bukper) 조사 태스크포스 구성 및 조세 범죄 처리 시스템(TCHS) 개선이 포함되었다. 특히 납세자 자산 데이터베이스인 ‘자산 회수 관리 시스템

(ARMS)’의 도입을 가속화하여 체납자의 자산을 신속하게 추적, 확보 및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비협조적인 납세자에 대해 시스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자동 차단 시스템(ABS)’을 도입해 채권 환수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고, 징수 소멸 시효가 임박한 1억 루피아 이상의 고액 채권 환수에 집중하고 있다. 현지 세무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이러한 전방위적 조세 징수 및 세무 조사 강화가 외국계 기업에도 예외 없

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현지 경제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국가 간 금융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법 집행 기관과의 국제 협력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지에 진출한 한인기업들 역시 불필요한 세무 조사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 세법과 납세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조세 행정 시스템이 ARMS, ABS 등의 첨단 기술로 고도화됨에 따라, 현지 한인기업들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한 회계 처리와 선제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포스트]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회장단회의 오는 6월19일 열린다



▲2025년 회장단 회의 자료사진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회장:이종윤)는 오는 6월 19일(금) 2026년 상반기 회장단회의를 팅그랑소제 임페리얼CC에서 연다.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회장단회의를 열고 협회 현황보고와 더불어 협회현안에 대한 논의, 글로벌 경기에 따른 협회의 대응방안등 폭넓은 현안을 주제로 열어왔

었다. 오는 상반기 회장단회의에는 미-이란전쟁으로 인한 회원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에 대한 논의와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 다소 무거운 현안을 토론했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

인도네시아 정부부채, 1경 루피아 육박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가 2026년 1분기 기준 1경 루피아(10,000조 루피아)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부채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됐다. 재무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2026년 3월 31일 기준 정부 부채가 9,920조4,200억 루피아(약 5,71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652조8,900억 루피아, 즉 전체 부채의 87.22%는 국채(State Securities)로 구성됐으며, 나머지 1,267조 5,200억 루피아는 직접 차입

금이였다. 이 수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금융시장 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부는 부채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75%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가재정법(State Finance Law)이 정한 법정 상한선인 60%를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조달·리스크관리총국은 성명

을 통해 “정부는 최적의 부채 포트폴리오를 달성하고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 유지를 목표로 한 건전 재정 원칙에 따라 부채 관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국채 발행이 단순히 재정적자 보전 목적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을 심화시키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IJ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 .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인니 노동계, 3개월 내 9천 명 해고 가능성 경고



▲2026년 5월 1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자, 대학생, 시민단체 등 수천 명이 세계 노동절(May Day)을 맞아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중동 전쟁 여파로 연료·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향후 3개월 내 자바 전역 제조업계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25일 전했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의 사이드 이크발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전쟁 장기화로 생산비가 치솟으면서 반뜰, 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 지역 10개 기업에서 약 9천명의 노동자가 감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사전에 경고를 받은 노조원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 대략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노동당 대표이기도 한 사이드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산업용 연료는 보조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5월부터 가격 인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향후 3개월 안에 인력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기업들은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류비가 오르는 데다 루피아화 약

세까지 겹치면서 달러 결제가 대부분인 수입 비용이 크게 늘었다.

루피아 환율은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약세를 이어가며 지난 주 달러당 17,700 루피아 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쟁 이전 환율은 16,700~16,800루피아 수준이었다.

전쟁 여파로 폐업한 사례로는 서부자바 데벡 소재 전자업체 싹띠 인도네시아(PT. Xacti Indonesia), 옛 산요)가 꼽혔다. 이 회사는 재정난으로 지난해부터 감원을 진행해왔으며, 전쟁 발발 3개월 만인 이달 공장 운영을 완전히 중단했다. 이 회사는 노동자 350명을 해고하고 디지털 이미징 기기와 전자부품, 인쇄회로기판(PCB)을 생산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사이드는 곧 인원 감축에 나설 10개 기업을 모두 밝히진 않았지만, 신발 및 섬유업체인 신화(PT Shinhwa), 룡청 브라더스 인더스트리얼(PT Lung Cheong Brothers Industrial),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PT Parkland World Indonesia)가 이달 들어 감원에 나섰다고 전했다.

반뜰주 세랑의 신발 제조업체 니꼬마스 그밀랑(PT Nikomas Gemilang) 같은 대기업도 노동자 279명을 감원했지만 전체 직원 수는 여전히 수만명 규모라고 덧붙였다.

또 서부자바 제조업 중심지인 까라왕 지역에서만 최근 총 1,323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중부 및 동부자바 자동차 업계 역시 자동차 수요 감소와 소비 위축, 수입 부품 가격 상승 등으로 소름과 정비업체를 중심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드 회장은 “일부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어 향후 몇 달 안에 확실히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나이키-아디다스 신고... 북한 女축구단, 훈련장선 웃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19일 경기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경기를 앞두고 공식 훈련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내고향은 20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수원FC위민과 맞붙는다. 2026.5.19/뉴스1

인니, 달러 무증빙 매입 한도 2만5천 달러로 다시 축소...6월 시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은 루피아 화 안정을 위해 별도 실물 거래 증빙 없이 가능한 달러 매입 한도를 다음 달부터 2만5천달러로 대폭 축소한다.

최근 루피아 환율이 사상 최저치로 급락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19일 자카르타글로벌브에 따르면, 빼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달러 매입 한도를 현행 5만달러에서 절반 수준인 2만5천달러로 낮춘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루피아 환율은 19일 오후 기준 달러당 17,700루피아를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가정한 환율 수



▲달러 (사진=안따라포토/Wahyu Putro) 준인 달러당 16,500루피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빼리 총재는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달러 매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10만 달러였던 한도는 지난 4월 5만 달러로 낮아졌고, 이번에 다시 2만5천 달러로 조정됐다.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5만달러 한도 도입 이후 실물 거래 근거 없이 이뤄진 달러 매입 비중

은 전체의 6.5%로 낮아졌다. 이는 올해 1~3월 평균인 10.8%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빼리 총재는 한도를 2만5천달러로 더 줄이면 해당 비중이 약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중동 지정학적 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루피아 안정을 지키기 위한 중앙은행 대응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루피아 방어에 위해 2025년 1월 이후 기준금리를 4.75%로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2개월 만기 중앙은행 루피아 증권(SRBI) 금리도 6.41%까지 높였다고 밝혔다.

[자카르타글로벌브/자카르타경제신문]



PT ALJI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한국인 상담)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IUM GREEN NUSA

인니 중앙은행, 기준금리 5.25%로 인상... 루피아 안정 위한 선제 대응



▲인도네시아 루피아 지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루피아 약세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50bp(베이스포인트) 인상했다.

중앙은행 빠리 와르지오 총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에서 5.25%로 올렸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동결됐다.

빠리 총재는 이번 결정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루피아 환율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2026~2027년 물가상승률을 정부 목표치인 2.5±1%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빠리 총재는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춘 2026년 통화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며, 인도네시아 경제의 대외 충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루피아 가치는 장 초반에 달러당 17,800루피아까지 떨어졌다가 금리 인상 발표 후 17,600루피아 수준으로 반등

했다.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내외 시장에서 현물 및 선도거래(forward transactions)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의 4월 말 외환보유액은 1,462억 달러로, 한 달 전의 1,482억 달러보다 감소했다. 이는 약 5개월치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제 권고 기준인 3개월치를 웃돈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해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 수단의 수익률을 높이고, 채권시장 유동성 관리와 은행 대출 지원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로 루피아는 7~8월 안정세를 보이며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빠리 총재는 전망했다. 그는 지난 18일 의회 제11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와 같은 글로벌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친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없으며 안정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은행은 2026년 루피아 환율이 달러당 평균 16,800루피아 수준에서 움직이

며 정부 예산안 목표 범위인 16,500~16,900루피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브라보워 수비안포 대통령은 20일 2027년 국가예산 성장률 목표를 5.8~6.5%로 제시하며 2029년까지 8% 경제성장 달성 목표를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을 억제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리잘 포피꾸라흐만 거시경제금융센터장은 20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긴장과 외국인 자금 유출 확대 속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 불안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과도한 금리 인상은 대출과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식량, 주택, 노동집약 산업과 같은 우선 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나문은행의 이코노미스트 호시안나 예발라파 시푸모랑도 이번 조치가 루피아 약세로 인한 식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가 글로벌 불확실성 속 성장 모멘텀 유지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자카르타서 한타바이러스 확진 3명, 의심 6명 발생...당국 경계 강화

You Can Prevent Hantavirus

How to Protect Yourself and Your Family from Hantavirus Pulmonary Syndrome in the United States



▲한타바이러스 자료 이미지

자카르타 보건당국이 관내 한타바이러스(Hantavirus) 확진 3명과 의심 사례 6건이 확인됨에 따라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니 루스피타와티 자카르타 보건국장은 18일 현재 수도권에서 한타바이러스 확진 사례 3건이 확인됐고, 의심 사례 6건은 계속 추적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4명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했으며, 1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한타바이러스 경계를 발령한 이후, 자카르타 주정부는 시내 의료기관들에 한타바이러스 주의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한 보다 엄격한 감시와 지역사회 내 잠재적 감염 사례 탐지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병원을 감시거점병원으로 지정했다. 자카르타 보건국은 감염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대응팀도 운영 중이다.

아니 국장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설치류를 통해 전파된다. 주민들에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감염이 쥐의 배설물, 침, 소변에서 나온 미세 입자를 흡입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물질이 마른 뒤 공기 중 먼지와 섞이면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오염된 설치류 분비물과의 직접 접촉이나 쥐에게 물리는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쥐가 출몰한 장소를 청소할 때는 충분히 환기해야 하며, 마른 쥐 배설물을 그대로 빗자루로 쓸지 말라고 경고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국제선 입국자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수카르노하타공항의 한타바이러스 검역 조치도 강화했다. 강화된 검역 조치에는 건강상태 신고서 제출, 열감지기 검사, 입국자 육안 관찰 등이 포함된다.


보건검역센터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는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질병은 아니다. 관련 연구는 2015년부터 진행돼 왔으며, 당국은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23건의 한타바이러스 사례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1 1369 4992
Kakao ID 6shg10



2026년 “에이스 에너지” 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사업에 본격 투자합니다.

We are Korea's No. 1 Solar Power Development & EPC, O&M Company in Indonesia.

PT. ACE ENERGY SERVICE는 인도네시아 No. 1 Developmet & EPC, O&M 태양광 전문회사입니다.


2026년부터 ACE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ACE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전문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선도 투자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ACE의 핵심 투자사업 영역
ACE는 다음과 같은 미래 지향적 사업 분야에 집중합니다.

- 산업형 태양광 솔루션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Non-CAPEX 솔루션 제안)
- OFF_GRID/IPP/PPP사업 투자/개발
- WTE, HYDROPOWER, 전기차 충전소
- 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연계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초기 자본 지출 부담, ACE가 없애드립니다!

ACE는 고객의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초기 자본 지출(CAPEX)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비(非)CAPEX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 부담 없이 실제 RE100과 NET ZERO에 도전하세요.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 PT ACE ENERGY SERVICE에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Kang Sung Won : 0811 1055 5610 / ksw97711@naver.com

미래를 여는 에너지, ACE와 함께 만드세요!

PT. ACE ENERGY SERVICE

인도네시아 No. 1 Financing - EPC - O&M 태양광 전문회사

-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
-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한 장기적인 최적 효과를 보장
-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목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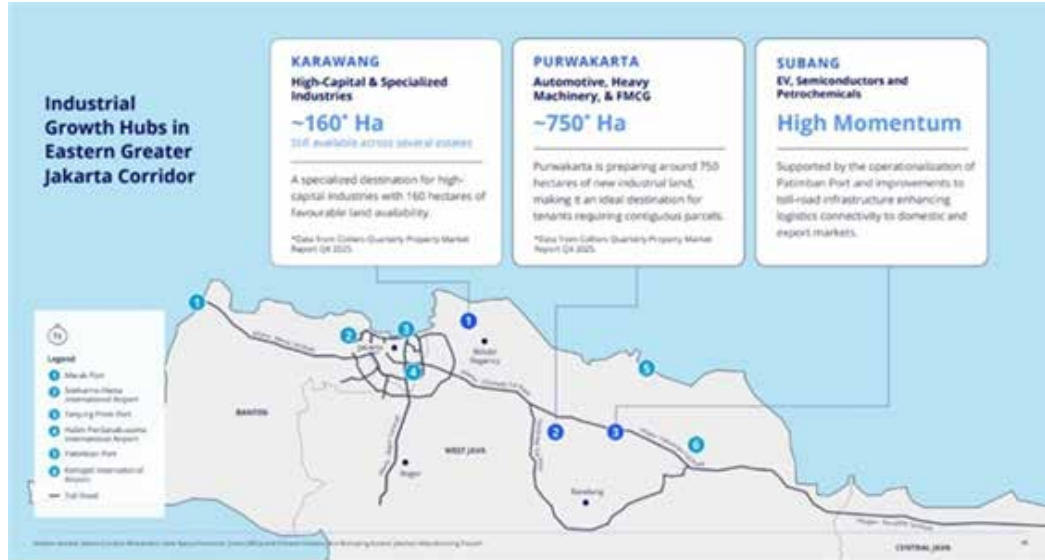
세계적인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컨설팅 기업 콜리어스(Colliers)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카르타 광역권 산업 시장이 기존의 브카시(Bekasi) 중심축에서 벗어나 뿌르와카르따(Purwakarta)와 수방(Subang)을 잇는 '동부 회랑'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확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중국 투자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토지 고갈이 부른 동부 확장... 수방·뿌르와카르따 '신(新)거점' 부상
현재 자카르타 산업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공급 제약'이다. 전통적 제조 허브인 브카시와 까라왕 지역은 산업 용지가 사실상 고갈 상태에 직면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이들 지역의 신규 토지 공급량은 0헥타르를 기록하며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반면, 장기적 확장성을 제공하는 동부 지역은 강력한 모멘텀을 얻고 있다. 뿌르와카르따는 현지 제조업 주도로 자퍼루후르 산업 스마트 시티(JISC)에서 22헥타르의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수방은 빠뎀반 항구(Patimban Port)와의 연결성과 유료 도로 인프라 개선을 등에 업고 미래 성장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의 입주 예정 소식은 수방 지역이 차세대 제조 거점임을 공고히 하고 있다.

콜리어스의 리반 무난사 이사는 "성숙기에 접어든 브카시/까라왕은 중소형 임차인을 위한 표준 공장 건물(SFB) 중심의 이원화 전략을 취하는 반면,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기업들은 비용 효율성이 높은 동부 회랑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투자자의 다변화와 공급

자카르타 산업 지도 변화... 동진(東進) 정책과 중국 자본이 재편하는 제조업 미래



망 재편의 중심지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중국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다. 과거 니켈이나 철강 등 중공업 위주였던 중국의 투자는 이제 전기차(EV), 헬스케어, 소비재, 데이터 센터 등 고부가

가치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1분기 토지 매입량의 36% 이상을 데이터 센터와 화학 분야가 차지한 점은 이러한 산업 다변화를 뒷받침한다. 특히 서부 찰레곤(Cilegon)에서 이뤄진 26헥타르 규모의 대형

거래는 석유화학 및 EV 배관 산업이 주도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제조 관문'으로서 인도네시아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격 측면에서도 이러한 인

기를 반영하듯 산업용지 평균 호가는 1제곱미터당 181.59달러로 상승했다. 특히 인프라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는 수방 등 신흥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전망: 하이테크 인프라와 유틸리티 신뢰성이 성패 가를 것
콜리어스는 향후 산업단지 개발업체의 성공 여부가 '인프라 준비성'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땅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센터 운영자나 하이테크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전력 신뢰성, 수자원 관리,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갖춘 단지만이 시장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산업 시장은 이제 브카시라는 울타리를 넘어 동부 회랑이라는 거대한 경제 서사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퍼즐로 떠오른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니 외환보유액, 4월 말 1,462억 달러... 20억달러 감소 한국, 4,278억8,000만 달러로 42억달러 증가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이 전월보다 20억 달러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이 루피아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을 강화한 영향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서 2026년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1,46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20억 달러 감소한 수치다.

중앙은행은 감소 배경으로 세수 및 서비스 수입 감소, 정부의 글로벌 채권 발행, 대외부채 상환, 그리고 루피아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조치를 들었다.

람단 데니 프라코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이 대외 부문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람단 대변인은 현재 외환보유액이 수입 기준 약 5.8개월치, 또는 정부의 대외부채 상환까지 포함할 경우 약 5.6개월치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적 적정 기준으로 여겨지는 '수입 3개월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중앙은행은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지속적인 외국인 자본 유입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의 대외 건전성이 견조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러한 전망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와 비교적 높은 투자 수익률 기대에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람단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외 부문의 회복력과 경제 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환보유액은 각각 4,278억8,000만 달

러와 1,462억 달러이다. 2025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GDP 규모는 각각 약 1조 9,000억 달러와 1조 4,400억이다.

단순 비교하면, 한국 외환보유액이 인도네시아의 약 2.9배 수준입니다. 또한 특징을 보면, 한국은 4월에 외환보유액이 증가(+42억 달러), 인도네시아는 4월에 감소(-20억 달러)했다. 한국은 달러 약세에 따른 자산 평가 증가와 투자수익 영향을 받은 반면, 인도네시아는 루피아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 시장개입, 대외부채 상환 영향이 주요 원인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스크린 골프 1등 설치 업체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고, 대형빌딩, 백화점

착한가격/완벽한 시공/신속한 A/S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6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2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영업점: 롯데에비뉴 5층, 땅그랑, 버카시
신속한 A/S팀 운영중
이용료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특별 할인 행사 중고제품 1대 : 99 juta

WA / Call : 0815 7456 8000 (Mr Lee Jung Gi)
Email : vgolf03651@gmail.com



인도네시아 신설 원자재 수출기관 ‘다난타라 숨버르다야’ 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연설하는 프라보워 대통령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캡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석탄과 팜원유(CPO) 등 전략 원자재 수출을 국가가 통제하는 새 국영 수출기관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기관의 이름은 ‘다난타라 숨버르다야 인도네시아’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다. 정부는 이 기관을 통해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 계약과 거래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고,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출 과소 신고’ (Under-Invoicing)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일 자카르타 국회에서 열린 거시경제 기본틀 및 재정정책 방향 연설에서 “지정된 국영기업이 마케팅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수출 과소 신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수출 과정에서 가격 축소 신고와 회계 축소 문제가 발생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수출 저가 신고로 약 9,08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특히 팜유

가격 결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데도 가격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이상하다”며 “우리 스스로 팜유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사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 팜유를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으로, 팜유 농장 면적은 약 1,680만ha에 이른다. 팜유는 식용유뿐 아니라 초콜릿,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쓰인다. 정부 규정 초안에 따르면 다난타라 숨버르다야 인도네시아는 전략 상품 수출을 담당하는 특수 국영기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대 주주는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구조의 일부인 다난타라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경영진에는 전 발레 인도네시아(Vale Indonesia) 이사 루크 토머스 마호니가 대표 이사로, 전 만디리증권(Mandiri Sekuritas) 이사 해럴드 조너선 다르마 TJ가 대표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로산 루슬라니 투자부 장관 겸 다난타라 최고책임자는 “다난

타라가 원자재 수출 업무를 담당할 새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새 규정 시행 전 약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시행 계획은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전환 기간이다. 이 기간 민간 수출업체의 해외 거래와 계약은 점진적으로 다난타라 숨버르다야 인도네시아로 이전된다. 2단계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면 시행 단계로, 해외 계약과 수출 거래는 국영기관이 전담하고 국내 기업은 해당 기관과 기업 간 거래 (B2B) 방식으로만 거래하게 된다. 새 제도 아래에서는 수출 전 단계에서 인허가, 계약, 결제 조건, 포장, 송장 작성, 물류 예약 등을 국영기관이 관리한다. 통관 단계에서는 수출 서류와 세관 절차, 선적을 맡고, 통관 이후에는 수출 문서 마무리와 대금 정산 절차를 처리한다. 이번 조치는 루피아화 약세, 주식시장 하락,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압박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원자재 수출 감폭을 강화해 세수를 늘리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에디 마르토노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 회장은 “수출업체들은 이미 자체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며 “부실한 관리로 이런 시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당일 자카르타종합지수(JCI)는 장중 한때 최대 2.4%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증시는 올해 들어 큰 폭의 조정을 겪었고, 루피아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출 통제 강화

가 세수 확대와 무역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지, 아니면 민간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지

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통관애로 빈번한 인니 현지서 해결 비법 듣는다

관세청 · 코트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관세청과 코트라는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관세청>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비법을 관세 당국자로부터 직접 묻고 듣는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은 20일(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이나미드플라자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청, 할랄 인증청, 투자청과 현지 우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 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1: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측은 △현지 수출입통관제도 △할랄 인증 규정 △투자환경과 진출 전략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 현지

기업 관계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관세청과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오류 사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코트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이 추진한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관세청과 코트라는 오는 6월 인도네시아 수출기업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통관제도 웹 세미나(Web을 활용한 온라인 세미나)’를 추가 개최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해외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인도네시아, 에볼라 유입 차단 위해 공항 검역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거리 모습(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앙아프리카에서 13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전염성 강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해외 유입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 등 주요 입국 지점의 보건 검사를 강화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감염 확산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보건 요원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심 환자는 지정 감염병 병원으로 이송한 뒤 전국 감염병 조기경보대응시스템(SKDR)을 통해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7일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 에볼라' 확산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부 대변인 아지 무하와르만은 19일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도착 21일 이내에 발열, 피로, 근육통, 두통, 설사,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부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내 에볼라 확진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

영국 그리피스대의 역학자 디키 부디만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유행 위험은 낮다고 평가했다. 아프리카발 여행객 유입이 제한적이고 에볼라가 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신속한 진단 체계, 의료진 보호장비 확보, 격리시설 준비 등 대응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대응 성공 여부는 진단과 조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WHO는 19일 이번 에볼라 확산의 "규모와 속도"에 우려를 표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공과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의심 사례 543건, 확진 33건을 보고했으며, 우간다에서는 감염자 2명과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병은 분쟁으로 불안정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 수주간 감지되지 않은 채 확산된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분디부조 에볼라는 기존 자이르 변종과 달리 승인된 특이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다.

WHO는 백신 옵션을 논의 중이며, 후보 백신 '에르베보(Ervebo)'가 검토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 가능 시점까지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민주공과 우간다에 체류 중인 자국민은 현재까지 감염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시민보호국 헤니 하미다는 주케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두 나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지 체류 국민들에게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필드위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골프장갑 만들어 드립니다.

- 소량 주문 가능합니다
- 동아리 및 단체에서 주문 할 경우 엠블런 및 심벌마크 디자인 무료 제공 해드립니다



고급 양피
일반 양피
부분 양피
고급 합피
극 세 사

골프장갑 제작 문의

0858 9060 0962 / 021 5010 4614
pt.kwanggaeto@gmail.com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지를 통해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 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 관련 회원사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21 1122 8827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한국 폰 없어도 OK” ... 인니 재외국민 3만 명, 현지 번호로 한국 공공 서비스 ‘문 활짝’



▲(C) 대한민국 정부24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 한국의 공공 웹사이트는 그동안 ‘가깝고도 먼 당신’이었다. 정부24를 통한 서류 발급이나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 해도, 한국 통신사의 휴대전화 없으면 본인 확인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 6일,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만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700만 재외국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서비스의 국경을 허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질적인 ‘본인인증 잔혹사’ 종지부

그간 재외국민들은 국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했다. 대부분의 국내 공공 및 금융 웹사이트가 ‘국내 통신사 인증’을 본인 확인의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외 거주자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한국 알뜰폰을 개통해 매달 기본료를 내며 유지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왕복 수 시간이 소요되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 왔다. 특히 재외공관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우, 사실상 한국의 행정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외 체류자 고질적 고충 ‘본인인증’ 장벽 허물어... 전자여권과 해외 번호만 있으면 즉시 발급 가능

행안부·재외동포청, 5대 민간 금융 앱과 협업 체계 구축... ‘디지털 영토 확대’ 의 이정표 마련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은 이러한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제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현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협업 통한 ‘속도전’ ... 5대 금융 앱서 즉시 발급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민간 금융권과의 유기적인 협업에 있다. 재외국민은 별도의 복잡한 정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미 익숙한 민간 플랫폼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 등 5개 금융 앱을 통해 즉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해당 앱에서 전자여권 정보를 입력하고 현지 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마치면 실시간으로 인증서가 생성된다. 특히 재외국민 등록 신청 시에도 국내 번호 없이 해외 번호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어, 신규 거주자들의 진입 장벽도 함께 낮아졌다.

사용 방법은 더욱 직관적이다. ‘정부24’를 비롯한 국내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 탭을 선택한 뒤, 국가 코드와 함께 자신의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자신의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된 인증 요청을 승인하기만 하면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 이용이 완료된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성과...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이번 성과는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국의 휴대전화로 한국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동포들의 일상 속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 또한 이번 시스템 구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윤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주 정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전 세계 어디서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글로벌 디지털 행정’의 표준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스템이 간편인증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공

공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본적인 서류 발급과 연말정산, 복지 신청, 교육 행정 서비스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국외에서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각 국가별로 상이한 통신 환경과 보안 규정 속에서 안정적인 인증 문자를 발송하고 수신하는 기술적 완성도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또한 민간 인증서의 유효 기간 관리와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도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진 국민들을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국가’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혁신이 700만 재외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출처 : 동포저널 세계한인언론인협)

자카르타 라수나 사이드서 6월부터 ‘차 없는 거리’ 정식 운영

자카르타 주지사 뿌라모노 아농은 오는 6월 1일부터 자카르타 HR 라수나 사이드(Jalan HR Rasuna Said) 구간에서 차량 통행 제한 행사인 차 없는 거리(CFD; Car Free Day)를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콤포스닷컴에 따르면, 라수나 사이드 구간 CFD는 매주 일요일 오전 5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운영된다. 당초 오전 10시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종교시설 예배 일정 등을 고려해 운영 시간이 조정됐다. 뿌라모노 주지사는 17일 북부 자카르타 PK2 지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수나 사이드 주변에는 오전 10시부터 종교 활동이 시작되는 장소들이 있어 운영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 수디르만 도로(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자카르타 주정부는 오는 6월부터 자카르타 수디르만-탐린(Sudirman-MH Thamrin) 구간 CFD 역시 기존 시간(오전 6시~11시)이 오전 5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한다. 두 지역 모두 6월 1일부터 새 운영 시간이 적용된다.

뿌라모노 주지사는 라수나 사이드 CFD 시행이 6월로 미뤄진 이유에 대해 “모노레일 기둥 철거 이후 지역 정비 작업이 진행 중

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행자 도로 정비와 가로수 식재 등 관련 시설 공사가 6월 1일 이전까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카르타 주정부는 지난 10일 라수나 사이드 구간에서 CFD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평가 결과, 교통 흐름과 주민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트란스자카르타 전용 차로와 시민 운동 구역을 분리하기 위해 도로 차단 시설을 설치했으며, CFD 방문객으로 인해 버스 운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도로 통제 시 차량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일부 구간에는 차량 회차 지점도 마련할 계획이다.

[콤포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IMS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글로벌 러닝 브랜드 ‘호카(HOKA)’의 한국 전개권 논란은 단순한 총판 계약 분쟁을 넘어 글로벌 본사와 현지 파트너의 관계를 다시 묻는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호카 미국 본사인 데커스는 올 초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이웍스가 협력업체에 조직적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지난 4월 언론 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아닌 ‘경쟁업체’로 사실관계가 수정됐다. 조이웍스는 미국 현지 준수법기관도 데커스의 새로운 한국 유통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표면적으로 계약과 법적 절차의 문제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호카가 한국에서 지금의 브랜드 지위를 얻기까지 누가 위험을 감수했고, 누가 시간을 들여 소비자와 만났으며, 누가 러닝 문화를 현장에서 만들어왔느냐다.

호카, 초기엔 글로벌 브랜드에 치여 ‘설명이 필요한 브랜드’ 국내 러닝 시장은 지금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한강과 남산, 여의도와 성수뿐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러닝 크루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러닝은 단순 운동이 아니다. 패션,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 현상이 됐다.

호카도 처음부터 대중적 브랜드는 아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두꺼운 미드솔과 독특한 쿠셔닝을 앞세운 낯선 러닝화로 받아들여졌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장악한 시장에서 호카는 설명이 필요한 브랜드였다.

그 브랜드를 한국 시장에 들여와 러너와 직접 만난 곳이 조이웍스였다. 조이웍스는 단순 수입·판매에 그치지 않았다. 트레일러닝 대회 후원, 아마추어 선수 지원, 러닝 크루 협업, 커



▲호카 SS 이미지

누가 ‘호카(HOKA)’를 키웠는가?

데커스 계약 해지 추진에 美 준수법기관 제동 글로벌 브랜드 성장 뒤 현지 파트너 존중 논의 커져

뮤니티 활동, 편집숍 전개를 통해 호카를 하나의 러닝 문화로 소개했다. 조이웍스 측도 호카가 국내에서 유명해지기 전부터 약 8년간 브랜드를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전문 스포츠 브랜드는 광고비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러너가 신뢰해야 하고, 커뮤니티가 반응해야 하며, 현장에서 반복해 검증돼야 한다. 어떤 크루가 신는지, 어떤 대회에 함께하는지, 어떤 러너가 추천하는지가 브랜드 자산이 된다. 결국 한국에서 호카를 키운 힘은 본사의 로고만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땀 흘린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함께 만든 신뢰였다.

글로벌 브랜드, 중소기업 개척과 전개권 교체 반복
문제는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패션·스포츠 시장에서는 초기 시장 개척은 중소 전문기업이 맡고, 브랜드가 성장하면 대형 유통사나 대기업이 전개권 확보전에 뛰



▲2025 BONDI 9 신제품 프리젠테이션

드는 일이 반복돼 왔다. 글로벌 본사는 더 큰 자본과 유통망을 선택하려 한다. 이는 기업 논리로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시장은 잘못된 학습을 한다. 중소기업은 새 브랜드 발굴을 꺼리게 된다. 장기 투자보다 단기 유통에 매달리게 된다. 브랜드를 함께 키우는 문화는 약해진다. 이는 한 총판사의 손익을 넘어 시장 전체의 혁신 동력을 훼손

하는 문제다. 조이웍스도 내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전임 대표 개인 사건이 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진 만큼, 지배구조와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이웍스는 전임 대표의 일탈을 인지한 뒤 경영권을 박탈했고, 단일 대표 체제에서 이문기·이민우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도 약속했다.

이문기 조이웍스 공동대표는 “데커스와 한국 러너들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들의 명예와 생계를 회복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한 거버넌스 확립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민우 조이웍스 공동대표 역시 “새로운 리더십에서 러닝, 아웃도어에 열성적인 임직원과 트레일러닝 대회 후원, 아마추어 선수 지원 등 사회 활동으로 조이웍스 브랜드 팬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은 글로벌 테스트 베드, 상호 신중한 판단 필요
이번 사안의 합리적 해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다. 데커스는 계약 논리만 앞서 우기보다 한국 시장 성장 과정에서 조이웍스가 기여한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 조이웍스는 새 리더십 아래 내부 통제와 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와 러너 커뮤니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정적 공급과 브랜드 경험도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 시장은 이제 단순 판매처가 아니다. 글로벌 브랜드에 한국은 러닝, 패션, 콘텐츠, 커뮤니티가 결합된 테스트베드다. 이 시장에서 현지 파트너는 물건을 나르는 유통사가 아니다. 브랜드 철학을 한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소비자와 연결하며, 문화를 만드는 주체다.

호카 논란은 그래서 묻는다. 브랜드가 성공한 뒤 그 성장을 함께 만든 파트너의 시간은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가? 무명 시절의 위험은 현지 기업이 떠안고, 성장 뒤의 과실만 글로벌 본사가 회수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시장에는 더 이상 진심으로 브랜드를 키우려는 플레이어가 남지 않는다.

브랜드는 본사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장이 만든다. 호카의 한국 전개권 논란이 계약 분쟁을 넘어 산업의 문제로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아디다스, 새티스파이와 함께한 첫 협업 컬렉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 새티스파이' 출시

아디다스, 테크니컬 러닝 브랜드 새티스파이와 파트너십 체결...
다양한 협업 제품과 프로젝트 전개 예정



▲아디다스가 새티스파이(SATISFY)와 첫 협업 제품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 새티스파이'를 출시했다(제공=아디다스)

아디다스와 새티스파이 첫 협업 컬렉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 새티스파이' 공개
아디다스의 검증된 레이스 퍼포먼스 기술과 새티스파이의 문화적 감각 결합해 퍼포먼스 러닝화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테크니컬 러닝 브랜드 새티스파이(SATISFY)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첫 협업 제품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 새티스파이(ADIZERO ADIOS PRO 4 SATISFY)'를 출시했다. 이번 협업은 아디다스의 혁신

신적인 레이스 퍼포먼스 기술력과 새티스파이의 문화적 감각을 결합해 현대 러닝 문화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자

아디다스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로컬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월드컵 룩북 형태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스포츠 컬렉션 전반을 아우르는 컬러풀한 화보가 대거 공개된다. 이번 화보에는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이강인을 비롯해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필릭스 등 세계적인 아이콘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과 함께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주드 벨링엄, 아민 야말과, 컬처 스타 배드버니 등 다양한 아이콘들의 화보도 나란히 공개됐다.

아디다스는 월드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게릴라 이벤트 'FREE THE ECH-

기 표현과 커뮤니티,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며 러닝을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협업 제품과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협업 제품인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 새티스파이'는 아디다스의 대표 레이스화를 감성과 태도, 문화적 표현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디자인은 스케이트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비대칭 컬러 그라데이션과 DIY 스프레이 페인팅 디테일이 적용됐으며, 매트 실버 컬러의 에너지 로드는 오프로드 버그카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됐다.

또한 에너지 반환을 위한 라이트스트라이크 프로(Light-strike Pro) 폼과 접지력을 높여주는 라이트트랙시온(LIGHTTRAXION) 기술이 적용됐으며, 컨티넨탈(Continental™) 고무 아웃솔과 카본 소재의 에너지 로드 2.0 등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의 핵심 퍼포먼스 기술도 그대로 유지했다. 협업 론칭 이벤트는 기존 트랙 레이스의 형식을 넘어선 새로운 러닝 체험 공간 '더 서클 핏(The Circle Pit)'에서 진행됐다. 미국 애리조나주 오로 벨리의 나란자 파크(Naranja Park) 펌프 트랙에서 진행된 '더 서클 핏'은 폐쇄형 루프 코스를 기반으로 지구력, 사운드, 움직임, 커뮤니티를 결합해 러닝을 하나의 몰입형 문화 경험으로 확장했다. 아디다스는 아디다스와 새티스파이는 퍼포먼스와 문화,

커뮤니티가 만나는 지점을 더욱 확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러너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러닝 경험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새티스파이의 최고 브랜드 책임자인 다니엘 그로(Daniel Groh)는 "이번 협업은 단순한 로고의 결합이 아닌 퍼포먼스와 문화적 의미가 만나는 프로젝트"라며 "두 브랜드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러닝 경험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 새티스파이'는 5월 19일 오후 5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아디다스 컨퍼드 앱을 통해 래플 응모가 진행되며, 당첨자에 한해 구매 가능하다. 컬러는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아디다스, 북중미 월드컵 기념 캠페인 화보 공개 손흥민 · 이강인 ·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등 참여



▲사진=아디다스 제공

OES'도 진행한다. 또 19일부터 26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센트럴 아트리움에서는 월

드컵 팝업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아디다스 월드컵 캠페인과 관련된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

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매일일보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aeto@gmail.com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ISO 9001 인증
2008년 신기술 인증
ISO 9001 취득
INNOCBIZ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CE 인증서 취득
RAMS
RAMS in Railway System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나이키 · 아디다스만 신던 시대 끝? 호카 · 온이 흔드는 러닝화 전쟁

러닝화 시장에서 호카와 온(On)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장기간 주도해 온 글로벌 운동화 시장에서 러닝 전문 브랜드들이 실적과 마케팅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카와 어그를 보유한 데커스 아웃도어는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연간 매출과 이익 전망을 제시했다. 데커스는 2027 회계연도 매출을 58억6000만~59억1000만달러(약 8조8900억~8조9700억원)로 예상했다. 이는 시장조사기관 런던 증권거래소그룹(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치 58억2000만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간 주당순이익(EPS)은 7.30~7.45달러로 전망됐다. 애널리스트들은 7.34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데커스의 실적 전망에는 호카 러닝화와 어그 부츠의 수요 기대가 반영됐다. 데커스의 2026 회계연도 4분기 총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주당순이익은 96센트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 가운데 호카 브랜드 매출은 4분기에 14.5% 늘었으며, 어그 매출도 9.2% 증가했다.

스테파노 카로티 데커스 최고경영자(CEO)는 “브랜드 구축, 제품 혁신, 카테고리 리더십에 대한 집중과 시장 실행력이 결합되면서 확대되는 글로벌 고객층 전반에서 정가 수요를 계속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호카는 두꺼운 중창과 쿠션감을 앞세운 러닝화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데커스 실적에서 호카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서, 러닝 전문 브랜드가 단순 기능성 제품



▲나이키 · 아디다스 양강 구도에 생긴 균열(사진=젯GPT AI 생성)

을 넘어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의 주요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위스 스포츠웨어 브랜드 온도 러닝화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온은 1분기 매출 호조에 힘입어 2026년 영업이익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2026년 영업이익을 전망치를 기준 18.5~19.0%에서 19.5~20.0%로 높였다. 올해 매출 증가를 목표로 최소 23%로 유지했다.

온의 1분기 매출은 환율 변동 영향을 제외한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8억3190만스위스프랑(약 1조61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8억2250만스위스프랑을 웃도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매출 증가율이 61.4%로 가장 높았다. 온은 중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온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21.0%로, 1년 전(16.5%)보다 높아졌다.

온은 배우 젠데이아를 브랜드 홍보대사로 기용해 젊은 여성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카스파 코페티 온 공동 CEO는 젠데이아와 함께 출시한 의류 라인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로이터통신에 “의류와 스니커즈 부문에서 추진 중

있다. 온이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오래 주도해 온 스니커즈 · 러닝화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에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여전히 주요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시장점유율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로이터통신이 글로벌 데이터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나이키의 글로벌 스

승한 브랜드로 포함됐다. 아디다스는 미국 시장을 성장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 소비 수요 회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명품업계를 포함한 여러 브랜드가 2025년 성장 동력으로 미국 소비자에 더 집중하고 있다. 아디다스 역시 삼바와 가젤 운동화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으며, 나이키로부터 시장점유율을 가져오는 동시에 온과 호카 같은 신흥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공세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디다스는 미국 소비자를 겨냥한 협업과 선수 후원 계약도 확대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기반 브랜드 스포티 앤 리치와 ‘컬리지 아메리카나’에서 영감을 받은 의류 · 신발 협업 제품을 선보였고, 퍼렐 윌리엄스 미국 음악가 겸 디자이너와 함께 새로운 슈퍼스타 92 운동화를 출시했다.

[이투데이]



▲온(출처=온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인 장기 성장 전략과 관련해 초기 단계에서 매우 고무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온의 전략은 러닝화가 운동 목적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상복과 결합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호카(출처=호카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웨어 시장점유율은 2023년 15.2%에서 2024년 14.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아디다스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8.2%에서 8.9%로 높아졌다. 뉴발란스, 온, 호카도 시장점유율이 상

오라리 x 뉴발란스 '204L' 협업 공식 이미지 공개 작년 파리 패션 위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그 스니커.

지난해 여름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오라리와 뉴발란스의 협업 스니커 '204L'의 공식 이미지가 공개됐다. 이번 협업은 1970년대 러닝화의 날렵한 비율과 2000년대 초반의 복잡한 테크니컬 패널 구조를 조화롭게 결합한 뉴발란스의 새로운 스니커다.

제품군은 서로 다른 소재와 색감을 사용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 출시된다. ‘화이트 라임’ 컬러웨이는 통기성 좋은 크림 및 그레이 매시 베이스에



깔끔한 화이트 가죽 오버레이를 얹었으며, 곡선 라인을 따라 탄, 크림, 연한 라임 옐로우 컬러를 미세하게 더해 포인트를 주었다. 반면 ‘다크 브라운’ 컬러웨이는 매시 소재를 완전히 배제하고 초콜릿 브라운 색상의 벨벳 스웨이드와 부드러운 누백 가죽을 겹겹이 쌓아 올려 고급스러

운 텍스처를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매트하게 마감된 외관에 다크 브라운 아웃솔과 대비되는 크림색 안감을 매치해 깊이감을 살렸다.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오라리의 디자인 철학에 걸맞게 외관에서는 오라리의 로고를 찾아볼 수 없다. 측면의 ‘N’ 로고와 텡텡의 ‘NB’ 엠블럼, 측면 힐의 ‘204L’ 각인 등 뉴발란스의 전통적인 브랜딩만 깔끔하게 유지했으며, 협업 로고는 인솔 내부에만 은밀하게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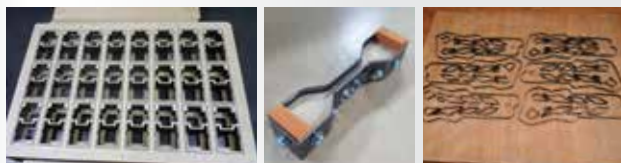
HYPEBEAST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나이키 신은 교황님’ 전세계 스포츠팬 열광 “에어 레오 출시하라”

최초의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71)가 8일 즉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그가 미국의 대표적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장면이 공개돼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다. 바티칸 뉴스는 교황의 즉위 1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레오네 아 로마(Leone a Roma·로마의 레오)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교황이 흰색 사제복 아래로 검정색 스우시(나이키 로고) 마크가 선명한 흰색 나이키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이 보인다.



▲교황 레오 14세가 교황 즉위 전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바티칸뉴스

이 장면은 레오 14세가 지난해 교황에 선출되기 전 로마에서 시간을 보낼 때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네티즌들은 “홀리 드립(Holy drip)”이라며 열광하고 있다. 한 스키커즈 전문 매체는 교황이 신은 신발이 나이키 프랜차이즈 로우 플러스로, 1970년대 테니스화로 처음

출시된 뒤 2000년대 후반 재출시된 모델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넷에선 “역대 가장 스타일리시한 교황” “나이키는 에어 조던 다음에 에어 레오(Air Leo)를 출시하라”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 교황은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맨’으로 알려졌다

다. 미국 시카고 태생인 레오 14세는 야구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열혈 팬이기도 하다. 2005년 화이트삭스가 8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을 때 교황이 현장을 찾은 영상이 공개됐고, 교황 즉위 이후 화이트삭스 모자를 쓰고 나타난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교황은 추기경 시절 바티칸 인근 헬스클럽을 꾸준히 찾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주교부 장관으로 로마에 부임한 2023년부터 교황 즉위 직전까지 바티칸 인근 ‘오메가 피트니스’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았다. 해당 트레이너는 “로베르트(교황의 본명)라는 이름의 평범한 회원이었다”며 “사제복도 입고 있지 않아 그냥 교수나 학자인 줄 알았다”고 했다.

당시 60대였던 교황은 주 2~3회 꾸준히 헬스장을 찾아 유산소 운동과 근력·자세 교정 운동을 병행했다고 한다. 교황의 전담 트레이너는 “나이에 비해 근육량, 골밀도, 체지방 비율 모두 탁월한 수준이었다”며 “평생 운동을 놓지 않은 사람의 몸이었다”고 했다. 지난해 교황 선출 추기경단 회의체인 콘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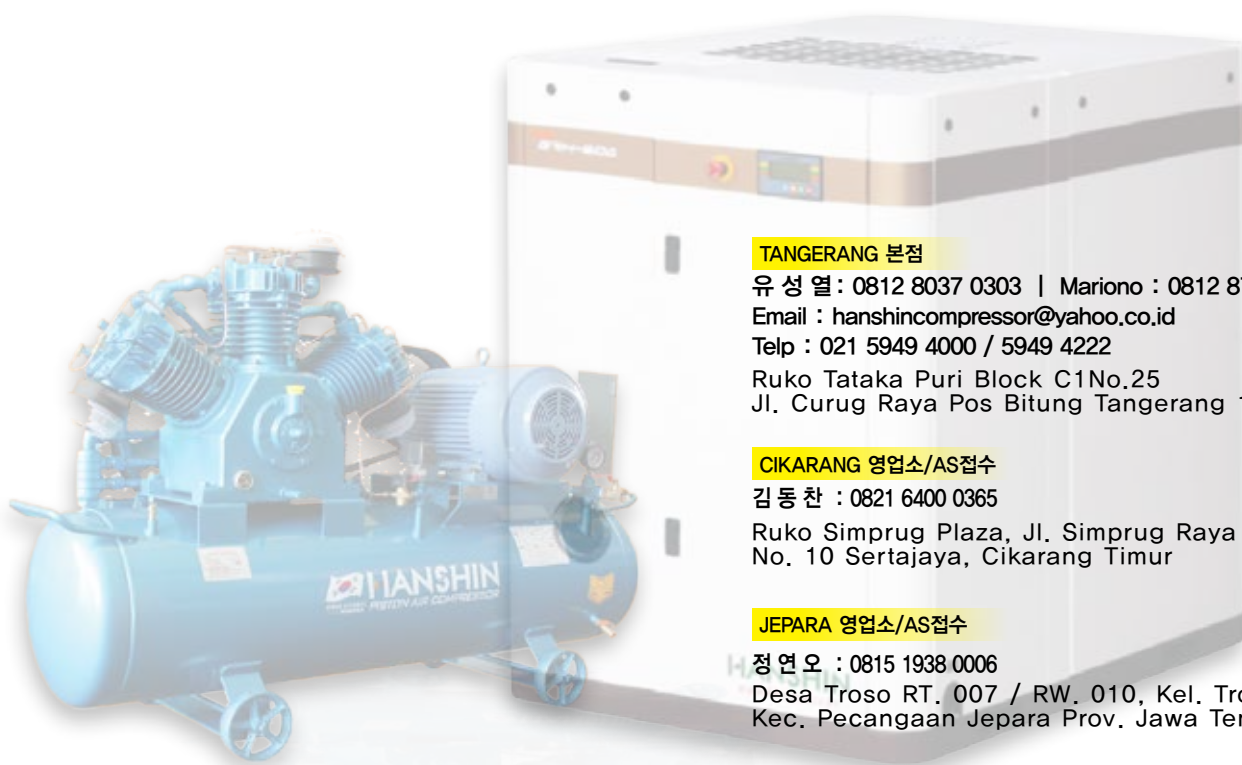
베에서 비교적 연소한 레오 14세가 선출됐을 때도 “건강하고 어린 후임에게 일부러 중책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7일 교황을 알현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교황에게 국무부 문장이 새겨진 크리스탈 미식축구공 모형을 선물했다.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다. 교황은 이란 전쟁 발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쟁의 신학적 정당성을 두고 연일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메리칸 스포츠맨’인 레오 14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애정이 각별한 터라, 그와의 마찰을 트럼프 행정부가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일보]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